

▶ 이 사람 -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전국체전, 국민 대통합 한마당으로 만들 것”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겠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열을 앞둔 지난 2일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을 만났다.

대회가 임박해 초조감과 긴장감이 얼굴에 묻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중하고 담담했다.

다만 잠이 부족한 지 피곤이 역력해보였다.

최형원 처장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성공 체전’을 위해 선수들 경기력 향상과 경기장 시설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전국체전준비단, 주 개최지인 익산시 등 도내 접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 대회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 처장의 하루는 24시간도 모자라다.

최 처장이 말하는 ‘성공 체전’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거두 목표인 종합성적 3위를 거두는 것만은 아니다.

국내 최대의 스포츠 대제전인 전국체전이 전라도 정도 1000년 맞은 해 전북에서 치러지는 만큼 체육대회를 넘어 국민 대통합 한마당으로 치르고 싶은 것이다.

이에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열을 앞둔 지난 2일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동참하고 준비하는 참여체전,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실속있는 경제체전,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안전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등본서주하고 있다.

또 이번 전국체전은 앞으로 있을 굵직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초석이나 다름없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육대회(2019년)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2020년)을 비롯해 전북도가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할 경우 전북체육회가 앞장서서 대회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장은성 기자

전라도 정도 1000년 맞은 만큼 체육대회를 뛰어넘고 싶어 체전은 향후 열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초석 도민 모두가 한뜻으로 참여해야

최형원 처장은 “이번 전국체전은 전북 체육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야 체전을 대축제로 치를 수 있다”며 “전국의 눈과 귀가 전북으로 집중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열리며 전북 선수단은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선수와 임원 등 총 1725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세계무대에서 경험 쌓는다

전북 U-12, 일본 '나이키 엔들러스 컵' 출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의 유소년 U-12 팀이 아시아로 무대를 넓힌다.

올해 화랑대기 우승을 일구며 유소년 축구 강자로 떠오른 전북 U-12 팀이 일본 '괴기' 가시마 엔들러스와 나이키가 주최하는 '나이키 엔들러스 컵 2018' 대회에 출전한다.

U-12 팀은 오는 4일 출국해 5~8일 4일간 일본 가시마 일대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 유수의 유소년 팀과 실력을 겨루고 세계무대 경험을 쌓는다.

전북은 지난 2016년 가시마 엔들러스 유소년 팀과의 교류전을 통해 맺은 인연으로 출전하게 됐으며 초청 팀 자격으로 본선부터 참가한다.

전북현대대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유소년팀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대외적인 교류 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더욱 넓혀줄 계획이다.

신용주 U-12 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선수들에게 성적이 치우치기보다는 훌륭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다”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겠다”고 말했다.

올해 10회 짝을 맞는 '나이키 엔들러스 컵'은 12세 이하 8인제축구대회로 일본 내의 100여 개의 팀이 예선을 거쳐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뉴스시스

“체전 전북 선수단 선전 기원”

하림 · 전은 · 국토정보공사 등 각계각층 지원 잇따라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과 관련, 각계각층에서 크고작은 후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토종 기업인 하림은 최근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후원물품(1억3400만원 가량)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양대 체전 개최식 참석자 등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 하림은 체전 홍보를 위해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 체전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은행과 동우화인랜드 후원에 동참했다. 전북은행은 군산지역에 체전 홍보탑 2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우화인랜드 익산 지역에 홍보탑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후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도 속속 담지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00만원을 전달했고 세기메디칼 김문철 회장과 성용종합건설 박영자 대표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기탁했다.

흥건 김광호 회장과 피앤 정광선 대표도 “선수들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했다.

‘우생순(우리생애에 최고의 순간) 신화의



지난 1일 열린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

주인공인 임미경씨와 전북여성체육위원회 조소자 위원장도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고 전북체육동우회 유학봉 회장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체전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선전해주길

기원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최선을 다해 전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선수와 임원 등 총 1725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맨유, UEFA 챔피언스리그 발렌시아와 0-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또 다시 승수 쌓기에 실패했다.

맨유는 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발렌시아(스페인)와 0-0으로 비겼다.

조세 무리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설로 뒤숭숭한 맨유는 발렌시아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달 22일 올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1 무승부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무승이다. 무리뉴 감독이 지도자 생활에서 4연속 홈 경기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유는 1승1무로 조 2위를 달렸다. 맨유는 폴 포그바, 알렉시스 산체스, 로멜루 투카우, 마커스 래시포드 등 최정에 멤버를 모두 내세웠다. 주도권을 쥔 채 경기를 풀었지만 끝내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뉴스시스

제2회 전북 아리움 어버이 합창대회



10월 6일(토) 오후 2시
전북도청 대공연장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방송: 가요TV, 시니어TV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